도요보의 춘하절 이너 소재들

도요보는 내년(2004년) 춘하절을 겨냥한 이너(inner : 속옷)소재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양감(凉感)소재”로서 ①제습(除濕)효과가 좋고 ②땀이 나도 피부에 들러붙지 않으며 ③피부에 닿으면 찬 느낌(冷感)을 준다는 세 가지 장점을 중점적으로 표면에 내걸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들 소재는 도요보가 자랑하는 장ㆍ단 섬유를 복합하는 기술을 동원하여 개발된 기능성이 높은 소재들로 되어 있다. 특히 ③의 피부에 이 소재가 닿으면 찬 느낌을 주는 기능성을 앞세운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재로서 내놓은 “필라시스ㆍ아쿨”은 제습효과가 있으면서 피부에 닿으면 찬 느낌을 주는 소재이다. 이 소재는 찬 느낌을 주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등의 합섬 필라멘트와 제습효과가 있는 흡습섬유 “아쿨”을 결합시킨 소재로서 지속적인 쿨링 효과가 있다.

또한 남자용 이너에서는 섬유의 단면이 납작한 모양의 특수 폴리에스터인 “원 투 파이브”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섬유로 만든 텍스타일이 “쿨어시스트”이며, 이 이너는 시원한 착용감과 부드러운 촉감 등이 특징이다.

도요보의 이너 소재는 부인용이 70%, 신사용이 30%의 비율로 생산된다. 금년(2003년) 추동절용으로는 “엑스” 등과 같이 기능성이 높은 소재나 장ㆍ단 섬유 복합소재들이 호평을 받으며 착실하게 판매되었다. 2004년 춘하절용도 그 동안의 거래 실적으로 봐서, 기능성이 높은 합섬과 면을 복합하여 새로 개발한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동향은,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데이터로 제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 도요보는 연구소를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